서초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고선재 의장,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 이끄는 조례 심의 당부

의회는 2월 23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23일에 열린 제347회 1차 본회의에서는 고선재 의장의 개회사와 4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지난 한 해의 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 잘된 점은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서초구 재정을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조례, 관광환경, 안전환경 지원 등 구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각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5분자유발언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교재 구입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이현숙 의원
서초구 청소년 중독예방 및 치료 지원 체계 수립 촉구	안병두 의원
서초구민이 직면할 부동산 세금 폭탄	김지훈 의원
서초구 근생빌라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촉구	강여정 의원

나눔의 온기로, ‘희망찬 시작!’

적십자 회비·이웃돕기 성금 전달로 나눔 실천
방배동 보훈회관 방문해 전기매트 100개 전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의회는 새해를 맞아 나눔문화를 실천하며, 구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먼저 의회는 지난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 회비 1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2월 2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의정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방배동에 위치한 서초구 보훈회관을 찾아 관내 보훈단체 9개 지회에 전기매트 100개를 직접 전달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한파에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정한 ‘맞춤형’ 물품이다. 의원들은 물품 전달 후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서초구의회의 명절 나눔은 처음이 아니다. 의회는 ▲2023년 떡국떡(200개) ▲2024년 겨울 이불(100채) ▲2025년 전기매트(100개) 등 해마다 꾸준히 온정을 나눠왔다. 특히 올해는 설 명절을 맞아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마음을 담았다.

고선재 의장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작은 정성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가족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